

〈토론〉

“4·3문학비평’에 대한 비판적 성찰” 토론문

김 동 윤*

고명철 선생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4·3문학이 담보상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성찰의 비평을 통한 ‘4·3문학비평’의 갱신을 강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고 선생님의 발표가 공교롭게도 제가 1998년에 발표한 「4·3소설의 전개 양상」이라는 글을 주로 검토하는 가운데 전개 되어서, 고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에 제가 답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자인 제가 발표자의 입장에서 질의를 받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토론이 저의 글에 대한 지적을 접하고 그것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쪽으로 상당부분 흐르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합니다. 저의 견해를 표명하는 가운데 고 선생님에 대한 질의를 병행하는 형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소설의 전개 양상」이라는 저의 글은 평론이 아닌 논문으로 작성된 것이며, 그것도 소설분야에 국한해서 사적인 흐름을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그 글보다는 작년에 저가 『제주작가』 제4호에 발표한 「4·3문학, 어디까지 왔나」를 주로 논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 글은 「4·3소설의 전개 양상」이라는 논문 틀에서 소설만이 아니라 시, 희곡 분야까지 확대해서 4·3문학의 흐름을 정리하고, ① 민중수난, ② 피해의식, ③ 미국 관련성, ④ 좌우 이데올로기, ⑤ 무장대 활동, ⑥ 민중생활사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한 형상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해 논의

* 제주대학교 강사

했기 때문에, 논쟁적으로 생각해 볼 거리는 좀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서, ‘피상적 접근 단계’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지인의 작품에서 4·3에 대한 피상적 접근에 대해 고 선생님께서는 정치적 요인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으로는 외지인 작가들의 경우 작가가 전해들었거나 체험한 적이 있는 특이한 사건을 소설화하는 데서 그다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윤석·오영수·곽학송·박화성 등의 작품은 분단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쓴 작품들도 아닙니다. 물론 시대적 억압과 정치적 경직성도 외지인 작가들에게 4·3을 피상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지만, 제가 그 작품들을 읽어본 느낌으로는, 다른 요인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품들에서 4·3에 대한 인식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 선생님께서는 ‘피상적 접근 단계’의 논의가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천착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시기의 4·3소설은 그런 맥락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수준에서 4·3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고 선생님께서는 이 시기의 어떤 작품의 어느 부분이 과연 그런 맥락에서 천착해야 할 작품이라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단계에서 제가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로 명명한 것은, 그 동안 금기시되었던 4·3에 대해, 특히 4·3으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상흔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순이 삼촌」 이후 사회적으로 인식시킨 시기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난사적 입장에서 증언과 고발에 집중된 시기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은 그 전, 그 이후의 단계에 비해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이 시기의 4·3소설이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에 의해 이루어졌는바, 그들의 유소년 시절 체험이 어떤 형상성을 보이고 있는지 세밀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는 고 선생님의 지적은 매우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작가들의 경우 이

시기만이 아니라 근래까지 계속해서 비중 있는 4·3소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굳이 이 시기에 국한해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다양화·종합화 단계'에서 고 선생님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장편화 경향에 대한 구체적 맥락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합니다. 그리고 논문이기 때문에 4·3소설의 현재성을 천착하는 데는 아무래도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케 되지 않았나 하고 변명해 봅니다. 다만 여기서 함께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도움을 청한다면, 혹시 고 선생님께서 주목하는 4·3 관련 장편소설들의 뚜렷한 맥락은 어떤 것인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저의 글이 실증적 정리에 치우친 나머지 4·3소설의 특징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석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분단 문학·민족문학의 거시적 담론과의 관계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문제라고 고 선생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이 점은 '4·3문학비평'을 제주문학의 범주로만 경계 지우는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배제와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또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런 경향이 부지불식간에 4·3 관련 논의에도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문학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역문학에 대한 탐구가 곧 민족문학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민족문학 혹은 한국문학은 서울 중심의 문학에만 치우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별 개별적 특수성과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 민족문학이란 획일화된 전체주의나 다름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민족문학의 쇠퇴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현대사의 모순이 제주도지역에서 계속해서 폭발되었다는 면에서, 제주문학이 민족문학적인 면에서도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고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제주문학의 지향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4·3문학의 대중성에 관한 고 선생님의 말씀은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각주를 통해 영화와 생산적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 방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영화의 폭발력에서 상당한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저로서도 그 점에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문학은 영화의 원작소설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입니다. 저가 보기에 일단 역사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작품을 써내는 일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고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4·3문학은 그 사안이 사안인 만큼 너무 무겁고 심각하고 진지하게만 창작되어 왔는데, '가벼움'의 시대에 '무거운' 주제를 써나가는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비평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상 두서없이 토론을 해 봤습니다. 고 선생님의 좋은 발표에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